

어떤 일이든지 장기간 동안 쉬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간 혹은 월간 잡지에 있어서의 그것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번도 거르지않고 전진해온 건강소식. 이제 100호발간을 맞이했다.

그동안 겪어야 했던 많은 변화와 발전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잡지로의 도약을 다짐하면서, 사회 각계각층, 독자들의 건강소식 100호 발간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심는다.



손 춘 호

그동안 뿌린 씨앗이 알찬 열매를 맺어
 기생충 박멸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제 성인병 예방에 큰
 몫을 하게 되었음은
 실로 장족의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지면을 통해 알기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리라 믿으며
 건강소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본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가난한 사람은 빈곤 때문에 등.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행복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반대로 가난했던 사람에게 약간의 재산이 생겼을 때, 권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약간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성간에 뜨거운 사랑이 타오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추구했던 바를 어느정도 성취 했을 때, 등등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 행복감에 젖어 들기도 할 것이며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생(生)에 대한 애착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생, 노, 병, 사와 회, 노, 애, 락 등 인간사의

모든 행, 불행이 내가 존재하지 않고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생각할 때 나 자신의 사고와 육체를 유지시켜주는 건강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금, 은, 보화나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행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찌기 우리 선인들께서도 수복강년을 기복(祈福)의 으뜸으로 쳤으며, 현대에 와서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까지 생겼지 않은가 여겨진다.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건강소식”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진청풍이 아닐수 없다.

이렇게 건강이 중요한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강을 해치는 유혹에 쉽게 무



한 용 철

「건강소식」은
금후에도 과거의 성과를
경험삼아 지령 100호를 기점으로
더욱 활발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활동에
앞장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창립될 당시의
전후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내기생
충감염율은 너무도 높아서 한마디로 기
생충 왕국이란 부끄러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6. 25를 전후하여 도회지
는 물론이고 특히 농촌 등지의 비위생적
인 생활에 기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복
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어른들
은 이를 소위 횡배 앓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국민학교에서 이처럼 횡배
를 앓아 검사를 한 후 구충약을 복용시

키면 엄청난 양의 회충을 쏟아놓는 일이
허다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채소에 인분을 주어 기르므로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아예 식탁에 올려
놓지않고 전량을 자기네 나라에서 들여
오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
생충감염과 그 피해는 심각한 보건문제
였다.

이와같이 어려운 일을 떠맡고 나선 한
국기생충박멸협회는 창립과 동시에 전국
적인 학생변검과 투약사업을 꾸준히 계

➡ 너지기도하고 지혜(=지식)가 부족하기
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대는 각종 질병이 다양해지고
내성이 강해지는 한편, 사람들은 운동부
족과 섭생에서 여러가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이를 극
복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지혜,
지식)가 절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때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
간하는“월간 건강소식”은 국민건강을 증
진시키는 일진청풍이 아닐수 없다.

1977년에 창간하여 어언 발간100호를
발행한다하니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고
귀하기 그지없으며 그동안 뿌린 씨앗이
알찬 열매를 맺어 기생충 박멸에 크게 기
여하였고 이제 성인병 예방에 큰 몫을
하게 되었음은 실로 장족의 발전이라 아
니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지면을 통
해 알기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를 국민에
게 제공하리라 믿으며 월간 건강소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본다.

(필자= 대한가족계획 협회장)

속하는 한편 「건강소식」과 같은 홍보매체들을 이용하여 부단히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 결과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기생충 감염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도회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1%도 채 안된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한 결과인 것이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우리나라의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기생충구충사업에 착수하여 이만큼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물론 정책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검사와 구충약의 투약을 들 수 있겠지만 이보다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홍보매체들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식생활에 있어서의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하나 하나씩 개선해나가도록 부단히 보건교육을 실시한데 연유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들라는 계몽을 하는 것이라든지, 기생충의 매개체가 되는 고기들은 반드시 익혀먹도록 한 것이라든지, 채소는 흐르는 물에 반드시 잘 씻어서 먹도록 하는 것이며, 인분을 사용치 말도록 권장한 것 등, 이러한 계몽을 통해서 국민들의 식습관 및 위생관념이 개선된 것은 생활향상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된 점도 있지만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부단히 홍보계몽을 실시하여왔던 공로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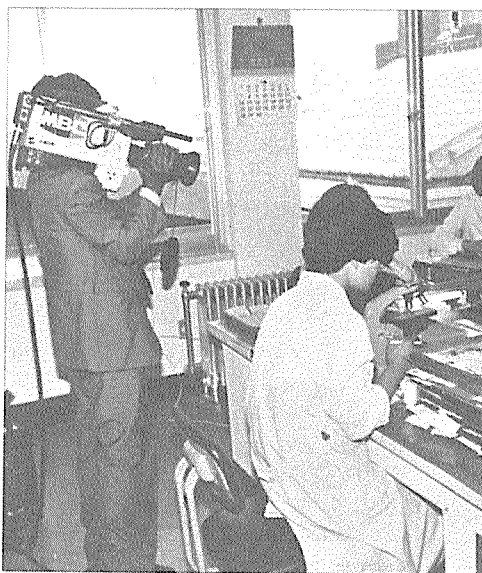
이러한 대국민 보건교육 및 홍보계몽에 있어서 전문지로서의 「건강소식」은 지령 100호를 돌파할 때까지 앞장서서 가장 중요한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왔던 것이다. 그만큼 건강소식이 국

민보건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는 자못 크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생충구충사업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성공을 거두었다.

때문에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그동안의 축적된 노력으로 이제 새로운 영역, 즉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태동시켜 우리나라의 성인병 및 성병 등 새로운 현대병의 박멸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 공존하는 「건강소식」은 금후에도 과거의 성과를 경험삼아 지령 100호를 기점으로 더욱 활발히 국민보건



「건강소식」은 지령 100호를 돌파할 때까지 앞장서서 가장 중요한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왔던 것이다.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활동에 앞장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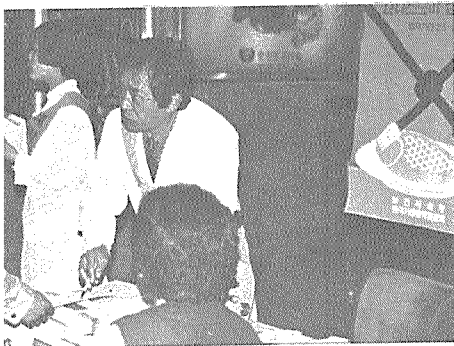
(필자= 대한결핵협회장)



이 준 상

1977년 7·8월호 「건강소식」이 창간된 이래 어언 통권 100호를 기념하는 책자가 나오게 되어 애독자 여러분과 같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서병설회장님과 건협임직원의 끊임없는 혼신의 노력으로 국민건강향상에 매진하려는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 돋보이는 것은 「건강소식」이 통권 100호까지 배부되면서 보건계몽사업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전국민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하여 매호 21,000부씩 발행하여 각급학교, 새마을문고 및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루 돌려 읽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매호에 적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예란이 있지만 대부분이 건강관리와 증진에 관한 글들로 채워져 있어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건협은 앞서가는 협회로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검사에 임하였으며, 앞으로도 여러 질병들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사업을 한층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건강소식」은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건강소식」이 창간될 무렵 기생충 감염률 0%달성목표를 표어로 내걸었을때 많은 사람들이 전혀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건협의 피나는 노력과 독자들의 이해 있는 배려로 기생충 감염률 0%의 달성은 멀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협은 기생충검사 이외 당뇨병검사, 간염검사 및 심장병검사 등 특수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며 86년에는 우리 국력신장의 소산이라 평가되는 '86, '88 올림픽 개최에 앞서 보건분야의 질적향상을 위한

각종 질환검사 종목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특수업태부, 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성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건강진단 및 신체검사를 추진하여 명실공히 검사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더욱이 돋보이는 것은 「건강소식」이 통권 100호까지 배부되면서 보건계몽사업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위험성과 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매일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의 보건분야에 대한 후진성을 탈

피하기 위한 의식구조 개선을 위해 공헌한 「건강소식」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봅니다. 「건강소식」 이외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또한 홍보기자재의 활용 및 직접 보건교육 계몽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건강소식」은 이와 같은 건협사업의 길잡이 및 계몽에 앞장서서 나왔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과 같이 계속 발전하며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필자= 고려의대 교수·의박〉

건강소식 지령100호를 축하합니다.



정 경 수

내가 「건강소식」을 처음 접한게 지난 85년 6월.

「수습」의 딱지가 막 떨어진 뒤 의학분야를 맡고 「건협」을 찾았을때,

「홍보실직원들과 수인사·통성명의 의례를 끝낸다음 차 한잔을 앞에 놓고, 담소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산뜻한 표지의 「건강소식」을 발견하고서 부터다. 책장을 넘기며 무심히 읽은 내용이 「서민들의 종합진단」.

건협의 서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취재해 방송했다.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데스크의 극찬이 뒤따랐다.
그후 나는 「건강소식」을 정기적으로
애독하는 독자가 됐고,
이를 통해서 서민대중을 위한
건협의 의료복지 사업을 많이 보도했다.

「私設 검진센터에서의 종합진단비가 무려 20만원을 웃도는 것과는 달리 건협에서는 이것이 1/5의 돈으로 자신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체크받을 수 있다는 것.

나는 곧바로 건협의 이와같은 서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취재해 방송했다.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데스크의 극찬이 뒤따랐다.

그후 나는 「건강소식」을 정기적으로 애독하는 독자가 됐고, 이를 통해서 서민

대중을 위한 「건강」의 의료복지 사업을 많이 보도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청자들로부터 쇄도해오는 문의전화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데스크의 칭찬이 계속된 것 또한 두말할 나위 없다.

「건강소식」이 통권 100권째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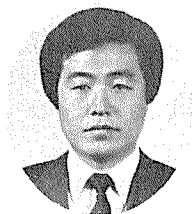
고 한다.

내가 이 「건강소식」과 벗하며 함께 해온지 벌써 두해, 나는 한 언론사에서 비중있는 뉴스를 전하는 바쁜 기자가 됐다.

「건강소식」의 발전과 도약을 기원한다.

(필자=MBC 문화과학부 기자)

건강소식 지령100호를 축하합니다.



김 효 식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문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다가도 곧 「설마, 나야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다시 돈과 명예쪽으로 눈을 돌리고 만다.

그러다 어느날 소리없이 찾아든 병마가 창문을 두드릴 때 쯤 우리는 다시금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회한에 젖어보지만 그때는 이미 전부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항상 우리 곁에 머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요란

이런 자리에서 새삼스레 그동안의 공과를 따진다는 것은 참으로 쑥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나 「건강소식」이 100호에 이르기까지 일반보건계몽 및 기생충계몽잡지로서 우리나라 기생충감염을 저하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

하지 않은 목소리로 일깨워주고 「건강」에 대한 「소식」을 꾸준히 전파해 온 「건강소식」이 어느덧 1백호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견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이런 자리에서 새삼스레 그동안의 공과를 따진다는 것은 참으로 쑥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나 「건강소식」이 1백호에 이르기까지 일반보건계몽 및 기생충계몽잡지로서 우리나라 기생충감염을 저하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60년대 까지만 해도 90%를 웃돌던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율을 이제 10% 수준으로 격감됐다. 그러나 이처럼 기생충구제 사업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어촌 주민들의 감

염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간흡충증등 특수기생충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더구나 현대병이라 일컫어지는 성인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인병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게 되므로써 「건강소식」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 1 백호를 맞는 「건강소식」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기생충과 성인병사업 홍보매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독자층을 보다 확대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고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써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건강문제의 60% 정도는 적절한 예방과 계몽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2천년대 국민건강에 대변지

금년부터 제 2의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와 함께 「건강소식」 역시 2 천년대 국민건강의 대변지로 자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문제의 60%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주기를 당부한다.

(필자=간협신보 기자)

건강소식 지령100호를 축하합니다.



김 화 자

전국에 있는 초·중고생들의 기생충 관리와 건강생활을 위한 길잡이로 시작된 건강소식의 100회 발간을 축하하며 그 공적을 회고해 보니, 건강관리협회의 직원들이 전 국민과 초·중고생의 기생충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80년대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한 건강소식을 참고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잘못 알고있는 건강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학생들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 건강지식을 전하게되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이후 오늘에는 그 감염율이 급속히 감소되어 서울지구 초·중고생들의 기생충 감염율은 0.2%~0.5%로 감소 시키는데 건강소식이 이바지 하였고, 각종 의학상식의 소개와 의학계의 소식으로 의료인과 양호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 생각한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양호교사들은 교문을 들어서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데, 학교 교정에서의 안전을 해치는 그 무엇이 있을까? 하는 관찰과 온수관리가 잘 되었는가? 하는 점검과 화장실 청소상태와 쓰레기장의 처리상태가 잘 되었는가? 하는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양호실을 찾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여주고 상담하여주는 일, 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한 투약을 하는 등 바쁜 매일의 일과를 계속하고 있다.

겨울이 접혀가는 2월, 겨울방학이 끝나 개학하고 학년말 고사도 끝나서 학생들의 긴장감이 다소 풀린듯하다.

하루의 일과도 거의 끝이난 보충수업 시간, 화장실의 청결상태와 소독상태를 살피려고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소근소근 속삭이고 웃기도하는 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남학생 화장실이라서 흡연 이러니 했는데 “성병인가봐, 아니야! 약을 먹고있어! 약은 먹으면 안돼”하는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일까? 졸업반 학생이겠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학생은 기대하였던 학생이 아니라 1학년의 어린 학생이었다.

깜짝 놀라 서 있는 양호선생을 발견하고 그들 또한 놀라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선생님 왜 여기에 서 계세요?”하는 학생들에게 “응? 우연히 너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대로

스칠 수가 없어 기다리고 있었으니 양호실로 가서 이야기좀 하여야겠다. 괜찮겠지?”(하면서) “네, 하고 모기소리로 대답을 하고 뒤따라오는 그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였지만, 모르는 척 양호실로 돌아왔다. 약 30분간 상담을 하여보니 전혀 경험도 없었고 순수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성기의 정상적인 발육상태와 간단하게 나타난 피부습진을 스스로 “성병”이라 진단을 내리고 겨울방학 동안을 혼자 고민하고 필요없는 항생제를 복용하였다는 웃지못할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형님과도 아버님과도 상담하지 않은 잘못을 책하였고 “아 살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하며 꾸벅 인사를하고 양호실 문을 열고 사라지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한, (찾아서) 보건교육을(성교육을)하여 잘못 알고있는 건강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교육하므로써 학생들은 물론 학생들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 건강소식이, 건강지식이 전하여짐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이에 귀 잡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식과 소식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필자= 당곡고등학교 양호교사)

